* 팀NO : 2018- 13

2018 단기선교팀 신청서

1. 국가팀명 : 캄보디아 (10 팀) 공항 : 프놈펜 *항공권구매: (자율,교회)
2. 사 역 지 : 몬돌끼리
3. 사역기간 : 2018 년 9 월 19일(수) ~ 9 월 27일 (목) / (8)박(9)일

선교위원회 확인		
담 당	분과장	위원장
[signature] 8/12	[signature]	[signature] 8/12

NO	직책	직분	성 명(한글/영문)		교구	CMTC	교적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주 소	E-Mail
1	팀장	집사	류동원	DONGWON REW	2	✓	[redacted]					
2	총무	집사	이기건	KIGUN LEE	2	✓	[redacted]					
3	서기	권사	오승민	SEUNGMIN OH	2	✓	[redacted]					
4	회계	권사	권윤숙	YOON SOOK KWON	2	✓	[redacted]					
5	의료	권사	김향신	HYANGSIN KIM	2	✓	[redacted]					
6	찬양	권사	오영하	YOUNGHA OH	2	✓	[redacted]					
7	전도	권사	양순옥	SOONOK YANG	9	✓	[redacted]					
8	전도	권사	강성자	SOUNGJA KOUNG	11	✓	[redacted]					
9												
10												
11												
12												
13												

* CMTC선교훈련 및 선교수련회는 출발 5주전까지 필히 수료하여야 출발할 수 있습니다.

* 비자를 받는 팀은 여권과 함께,비자를 받지 않는 나라는 여권을 COPY(B5 SIZE)하셔서 함께 제출하여 주십시오.

* 사진은 반드시 6개월이내이거나 여권과 다른 사진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 E-Mail Address는 팀장,총무,서기,회계만 기록요망.

교구(부서)장	교구(교육)위원장
[signature]	

43번째 금융도 감사회.
돈놀이 기리.

· 반쪽. (한국어 가능, 영어 가능...) 38세

가영화 모리나 봉화 사역
→ 한국인 모리사. 몇분이 같이 사역중.
→ 강호봉도 재능헌부 사역중 : ~~목축 재능~~ 목. ← 바이올린연주함
(73살)
· 아카데미 학생과 3교회를 지원함. : 44명 (~~[illegible]~~ 15~19살정도) → 미국한인교회지도.

야양이교회 "부뜨름교회" "부농마을" "닥산마을"
신도봉교회.

(부뜨름교회에 이 말 함) (구입나) 사역 후원관리 : 생활 수제 등
지난 부흥교회로 후원관리 존재함.

모리사님에 대한 이야기 : 헌신적이고, 열정적이 있는...
· 건축중이 거문이 (어학수업 아카데미 기숙사 + 세례하는 용)
~~건축~~ 중단중임.

어린이 사역 : 한국에서 크래파스 색칠놀이, 사진찍기 "100장 정도" 풍선놀이" + 사촌 증정 (기부받은것 100벌)
복음팔찌

→ 기타사항 : 가영화 모리나 지원 했이거 하는 ~

· 모리 인원은 10명 수준. (한교회기준 3교회로 합계 30여명)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이루어지길 계속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로 동역해주신 출판의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 주님께...

선교 소감문 (선교국가 : 캄보디아)

팀번호 2018-43 2교구 10팀 (팀장 : 류동원)

2교구 오 승민 권사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아니고는 한 발짝도 할 수 없는
이 죄인을 주께서 부르시고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님을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김 영화 선교사님의 사역과 캄보디아 영혼을 사랑하는
선교 열정과 수고에 많은 감명을 받고 어린 영혼
들과 여호수아 아카데미 학교의 학생들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모습에서 주께서
여기까지 축복하시고 함께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역 가운데 캄보디아 어린이들과 어른들 모두
함께 한가족이 되어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율동하며 찬양드리고 예배드린 함께한
시간 시간 들이 귀하고 소중하며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 하심을 저희 맘 속에 충만케 해 주셨습니다
총 전도잔치 때는 심한 우천으로 인해 차가 진흙에
빠져 꼼짝 못하고 힘들었지만 많은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반갑고 기뻤습니다
너무도 은혜 충만한 사역이었습니다
뿌려진 복음이 성령의 열매 맺기를
기원합니다 김 영화 선교사님과 함께
동역하고 협력하는 모든 분들과 이 곳에서
만난 영혼들이 성령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어 주님의 나라 복음의 나라가

Quality in Everything We Do
ERNST & YOUNG

No. 1

캄보디아 선교 소감문 (10팀)

2018년 9월 19일 ~ 27일
캄보디아 몽돌끼리 주 부뜨롱 교회, 다랑교회 방문.
현지 선교사 김 영화.

현지 주민과의 선교는 선교 사역지의 주민, 학생. 선교를 언어로 도와 주는 아카데미 하우스의 학생들이 통역으로 도왔는데 좋은 과정인 것 같다.
캄보디아 언어 사용은 그 곳 주민들은 알아서 글로 사용치 않는 소수민족 마을 이였다.

우리 팀원들은 각 가정마다 방문 선교를 하였으며 하나님을 영접하는 영혼들을 통하여 은혜가 풍성한 사역을 하였다.

아동들은 교회에서 예배 하며. 풍선 놀이. 그림 그리기. 색깔 도화 그림책으로 선교했다.

어른과 아이 모두 마을 전체의 축제는 교회에서 국수를 나누고, 아이들을 선물하며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교하는 행사를 하였다.
나 자신이 은혜 받은 선교사역 이다.

팀원 오 영화 권사.

Prepared by | Index No | Date

걸려 마음이 아팠지만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말씀이 생각 났다

주일 초청잔치에 동네 잔치 처럼 많이 모여 참 기뻤다.

선교사님 통하여 모두 영혼이 깨어나고 예수님 만나기를몬돌끼리에우상들 버리고 신 중에 크신 하나님께 돌아 오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2교구 캄보디아10팀

김향신권사

소감문

예수님 사랑 힘입고 멀고 먼 몬돌끼리 에서 선교하고 돌아올 수 있었음에 먼저 감사 드립니다.

캄보디아 10팀 팀구성이어려웠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팀훈련을 시작하게 하시고 훈련과정을 비롯해 모든 것이 감사 하였다.

3차 심사를 마치고 허리통증 때문에 갈등도 하고 왼쪽 귀 때문에 비행기 타기도 두려워 염려의 마음이 찾아 왔지만 기도하게 하셨고 신기하게 출발하기 바로 전 가벼운 마음으로 떠나게 되었다.

감사한 마음 뿐이였다. 프놈펜에 도착하니 날씨도 좋았고 숙소도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셨다.

이튿날 프놈펜 공원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 사역을 하며 프놈펜 믿음의 형제도 만나고 중국 믿음의 형제도 만나고 천국에서 만나는 것 처럼 반가워 하였다.

또 다시 멀고 먼 몬돌끼리 갈 준비를 마치고 차에 올랐다

가도 가도 멀기만 하여 혼자 말로 거기에 누가 있기에 이렇게 멀리 갈까? 주님 만나로갑니다 하며 찬송 부르며 지루함 없이 도착하였다.

아침,저녁팀장님 중심으로 경건회에서은혜와 감사로 하루를시작하였다. 김영화선교사님. 여호수아 아카데미 청년들과 협력사역을 하며 첫날은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갈수록감동과 감사의 날이였다.쁘뜨롬마을. 블롱마을.닥담마을 중에 가장 열악한 쁘뜨롬마을 어린이들이 마음에

여호수아 아카데미 현지 학생들, 현지인 전도사님, 현지인 성도들은 멀리 한국에서 온 저희 팀을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선교사님과 간담회를 하면서 몬돌끼리의 사역 일정과 방법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사역 둘째 날. 소수민족인 부농족이 살고 있는 부뜨롬 마을을 여호수아 아카데미 학생들과 현지인 통역과 협력하여 한 가정 한 가정 축호전도를 하면서 우리가 준비한 캄보디아 전도 언어로 마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 우리와 동행한 협력 현지인들은 부농족 언어로 통역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깊은 감명을 받게 되었고 저 자신의 사역활동에 큰 동기부여를 주게 되었다. 너무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마을 사람들을 만나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더욱 귀하게 여겨졌고 우리가 만난 영혼들 모두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임재 하셔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구원을 받고 더 나아가 몬돌끼리 주에 사는 사람들, 더 나아가 캄보디아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부흥되기를 간구하였다. 또한 현지에서 힘들고 어렵게 사역중인 김영하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한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수고에 존경을 표할 수 밖에 없었고 그들이 좀 더 안정된 여건 속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충현교회와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차후에 사역을 계획 중인 다른 팀들에게 캄보디아(몬돌끼리) 김영하 선교사님과의 협력 사역을 적극 추천 드린다. 마지막으로 사역을 준비하고 주님의 은혜가운데 모든 사역 일정을 마칠 수 있도록 기도로 동역해 준 교회와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9월 29일

사역소감문

2018년 캄보디아 10팀 이 기건

지난 2016년 5월경에 캄보디아(바탐방)를 사역 다녀온 경험이 있었는데 그 때 당시의 사역기간 중에 캄보디아 사람들의 순수함과 생활모습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게 되었고 다음번 캄보디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교구 내에서 캄보디아 사역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망설임 없이 선교 신청을 하게 되었고 저희 팀 구성이 지연된 관계로 2개월간의 짧은 준비기간 동안 저는 직장 생활을 병행하면서 준비하게 되어 몸도 마음도 지칠 때도 있었지만 부족한 저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는 주님의 은혜에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었다.

사역을 떠나는 순간까지 사단은 끊임없이 저를 공격하고 방해한다는 것을 강하게 느낄 수 있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지나고 한 명의 낙오자 없이 팀원 전체는 감사히 사역을 출발할 수 있었고 프놈펜 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공항 입국장에 수많은 현지인들이 서 있는 광경들을 목격하게 되었고 ‘주님께서 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예비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캄보디아 땅에서는 아직도 추수할 곡식들이 많은데 추수할 일꾼들 중에 저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의 저를 향한 크고 깊은 뜻에 감사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

프놈펜에서 차를 타고 캄보디아 오지이면서 선교활동이 상대적으로 약해었던 몬돌끼리를 가는 길에 캄보디아 땅의 이곳 저곳을 지나가면서 바라보게 되었고 특히, 몬돌끼리 지역을 지나가면서 끝없이 펼쳐진 푸른 초원과 청명한 하늘을 보게 되었을 때 이러한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몬돌끼리 영혼들을 빨리 만나서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다짐이 더욱 강해졌다.

사역 첫날, 현지에서 사역중인 김영하 선교사님 내외와 커피, 후추, 버섯 농장을 운영하면서 사역중인 선교사님들,

2018년 10월 사역 소감문 류동원

처음 하는 협동선교사역이라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가지고 준비했다.

이번 선교는 특히 연로하신 권사님, 몸이 불편하신 권사님들이 있어서 현지 선교사님의 일정에 맞추어 나가기 걱정이 앞섰다. 어느 선교때보다 기도하며 무사히 사역감당할수 있도록 다짐하며 몰똘끼리 사역지를 향해서 출발했다.

현지도착해서 현황설명에 진짜 영적인 전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슬람 사람들이 현지 곳곳에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며 정착해 나가고 있다고 한다. 선교사님도 현지 교회를 설립하여 자립해 나갈수 있도록. 신앙공동체 정착 목표로 일하시고 계셨다. 생명학교를 세우고, 커피농장, 후추농장, 버섯농장 등 세우시고, 우물파는 기계, 포크레인 등 장비를 자비로(거의) 구입하여 현지인들 같이 먹고자고 사역하고 계셨다. 마을 아이들. 어른들과 같이 한 주일 충만한 전도의 현장을 목격하고 참여함으로. 선교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된 귀한 선교사역이 되었다.